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2010. 9.

I. 머리말	1
II. 해외직접투자동향	2
III. 주요 특징	4
IV. 향후 전망	11

산업투자조사실 해외투자분석반

작성자	책임조사역 김유신 (6667)
확인자	반 장 김종호 (6664)

< 요약 >

1. 해외직접투자 동향

☐ 금융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 급감

- 2008년 1조 9,288억 달러(전년대비 14.9% 감소), 2009년 1조 1,010억 달러(전년대비 42.9% 감소)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 다국적기업의 수익 감소, 모기업으로의 현금 회수 기조, 금융 환경 악화에 따른 차입매수 인수합병 위축 등에 기인하며, 특히 선진국의 투자여력이 크게 약화

☐ 2010년 들어 해외직접투자는 소폭 회복

- 분기별로는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5월까지의 국경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시현

2. 주요 특징

☐ 미국, 프랑스, 독일이 여전히 투자 상위국을 차지

- 일본과 BRICs의 대외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유럽 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출에서 비중이 감소

☐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 유입 비중 증가

- 다국적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 높은 경제성장률과 경제시스템 개혁 등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으로 작용

☐ 업종 전반에 걸친 투자부진 기록

- 전기·전자장비, 전력서비스, 건설, 통신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면서 1차산업과 서비스산업 투자비중이 증가

☐ **국제금융시장의 붕괴로 다국적 기업간 M&A 급감**

- 금융 기관의 위험 회피와 주식시장의 붕괴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M&A를 통한 해외투자보다 그린필드 방식을 선호

☐ **국부펀드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비중 점증**

- 통상 국부펀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바, 2009년에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융 부문 투자를 축소하고, 원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3. 향후 전망

☐ **2010년~2012년 중 해외직접투자는 회복 전망**

- 금융시장의 안정, 경기 회복과 다국적기업의 수익성 개선, 각국의 해외투자에 우호적인 정책 실시 등으로 투자 회복 예상
- 1차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투자 비중 감소, 신흥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비중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아시아가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이 주요한 FDI 유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인도와 러시아의 투자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투자 전망**

- 연간 FDI는 2010년에 1.1조 달러~1.3조 달러, 2011년에 1.3조 달러 ~ 1.5조 달러, 2012년에는 2008년의 수준인 1.6조 달러~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본 보고서는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0을 재구성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I. 머리말

- 본 보고서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발간한 세계투자리포트 2010(World Investment Report 2010)과 동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UNCTAD는 각국의 통계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계기관은 주로 중앙은행이 담당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는 한국은행 자료이며, 통계 작성 방법 및 기준 차이¹⁾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통계 수치와 상당 부분 다름.
 - 특히 2009년에는 한국은행 통계에는 포함되고 수출입은행 통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해외건설공사의 국내 유입액이 증가하면서 양 통계간 차이가 심화됨.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²⁾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주로 유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1)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 작성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IMF가 권장하는 BPM(balance payment manual)을 따르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OECD가 권장하는 BD(benchmark definition)를 주로 따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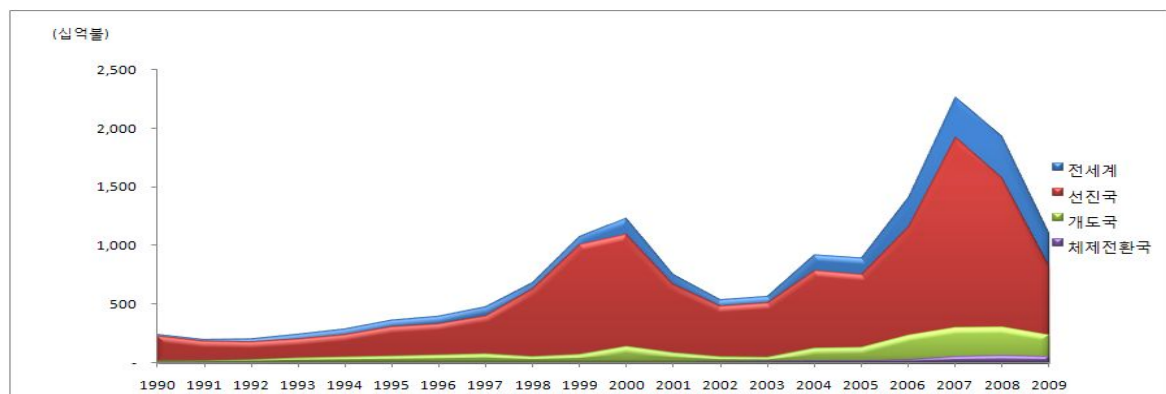
2)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자, 유입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음.

II. 해외직접투자 동향

□ 금융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 급감

- 금융위기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유출액(outflow) 기준으로 2008년 1조 9,288억 달러(전년대비 14.9% 감소), 2009년 1조 1,010억 달러(전년대비 42.9% 감소)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³⁾
-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의 수익 감소와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투자국으로의 현금 회수 기조, 금융 환경 악화에 따른 차입매수 방식 인수합병(LBO M&A) 위축 등에 기인하며, 특히 선진국의 투자여력이 크게 약화됨.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증가 유지

-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008년말에 2002년 이래 최초로 전년대비 16.1% 감소했으나, 2009년말에는 전년대비 17.1% 증가한 18조 9,821억 달러를 기록

3) 유입액(inflow) 기준으로도 2008년 15.7% 감소한 1조 7,709억 달러, 2009년에는 37.1% 감소한 1조 1,142억 달러를 기록

<세계 해외직접투자자과 우리나라 비교>

- 우리나라 해투 유출액은 전년대비 15.1% 감소한 194.5억 달러 (한은 기준 105.7억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
- 최근 5년간의 증감률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계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

【해외직접투자 증감률 비교】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세계	-3.0%	57.9%	60.8%	-14.9%	-42.9%
한국(한은)	-9.7%	89.1%	92.2%	21.3%	-44.2%
한국(수은)	9.2%	64.4%	84.3%	6.9%	-15.1%

□ 2010년 들어 해외직접투자자는 소폭 회복

- 해외직접투자 분기별지수⁴⁾는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5월까지 국경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시현함.
- 이는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의 경기 회복, 기업 수익성 개선,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가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

【FDI 분기별지수 추이】



4) 해외직접투자 분기별지수(FDI Quarterly Index)는 2005년의 분기 평균 투자액을 기준 (100)으로 해당 분기의 투자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전세계 FDI inflows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7개국 자료를 수집

Ⅲ. 주요 특징

1. 국가별 유출액 동향

□ 미국, 프랑스, 독일이 여전히 상위국을 차지

- 일본과 중국 등의 투자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BRICs의 대외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 특히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투자상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이 강화됨.
- 유럽 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출에서 큰 역할을 차지⁵⁾하고 있으나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함. 영국의 경우 해외투자액은 전년대비 89% 감소하며 전년 3위에서 2009년 14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함.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십억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미국	15.4	15	224.2	1	393.5	1	330.5	1	248.1	1
프랑스	115.0	2	110.7	3	164.3	3	161.1	2	147.2	2
일본	45.8	6	50.3	9	73.5	8	128.0	6	74.7	3
독일	75.9	4	118.7	2	162.5	4	134.6	4	62.7	4
홍콩	27.2	11	45.0	10	61.1	11	50.6	13	52.3	5
중국	12.3	18	21.2	18	22.5	20	52.2	11	48.0	6
러시아	12.8	17	23.2	16	45.9	14	56.1	10	46.1	7
이태리	41.8	8	42.1	12	90.8	7	43.8	14	43.9	8
캐나다	27.5	10	44.4	11	59.6	12	80.8	7	38.8	9
노르웨이	22.0	13	21.3	17	13.6	27	29.5	17	34.2	10
인도	3.0	35	14.3	24	17.2	23	18.5	23	14.9	21
한국	4.3	30	8.1	31	15.6	25	18.9	22	10.6	22

5) 유럽 투자비중 추이 : '07년 56.8%→'08년 47.5%→'09년 35.3%('90년 이후 누적 52.7%)

2. 국가별 유입액 동향

□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 유입 비중 증가

- 미국이 4년 연속으로 최대 유입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유입액 상위 6개국 중 세 국가(중국, 홍콩, 러시아)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십억 달러)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미국	104.8	2	237.1	1	266.0	1	324.6	1	129.9	1
중국	72.4	4	72.7	3	83.5	7	108.3	3	95.0	2
프랑스	84.9	3	71.8	4	96.2	6	62.3	7	59.6	3
홍콩	33.6	8	45.1	8	54.3	12	59.6	9	48.4	4
영국	176.0	1	156.2	2	186.4	2	91.5	4	45.7	5
러시아	12.9	15	29.7	14	55.1	11	75.5	5	38.7	6
독일	47.4	6	55.6	7	76.5	8	24.4	17	35.6	7
사우디	12.1	17	17.1	23	22.8	25	38.2	15	35.5	8
인도	7.6	30	20.3	17	25.0	22	40.4	14	34.6	9
벨기에	34.4	7	58.9	6	118.4	3	110.0	2	33.8	10
일본	2.8	50	-6.5	208	22.5	27	24.4	18	11.9	26
한국	7.1	31	4.9	49	2.6	66	8.4	40	5.8	40

<우리나라 유출입 현황>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경제 선진화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순유출액 추이】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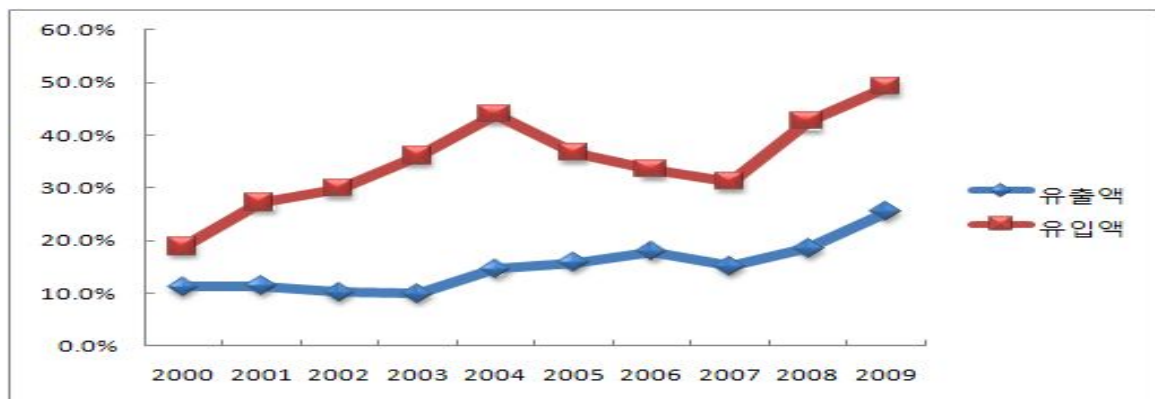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선진국	127,120	188,007	479,820	553,627	254,773
개도국	(203,026)	(205,675)	(272,783)	(333,727)	(249,190)
한국	(2,758)	3,246	12,992	10,534	4,729

3. 선진국과 개도국의 투자 동향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투자 비중 점증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outflow)은 2009년 전년대비 22.7% 감소한 2,290억 달러를 기록하여 6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선진국의 감소율 47.8% 대비해 양호한 수준임.
- 유입액 역시 2009년 24% 감소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영향을 덜 받았으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 높은 경제성장률, 경제시스템 개혁 등이 활발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으로 작용
- 다만, 유출 비중(25.5%)은 유입 비중(4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투자 주체로서의 선진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4. 업종별 국경간 M&A 동향

□ 업종 전반에 걸친 투자부진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화학 업종 뿐만 아니라 2008년에 탄력적인 회복을 보여주었던 의약, 식음료 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도 감소함.
-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덜 이루어졌던 전기·전자장비, 전력서비스, 건설, 통신 부문의 M&A는 전년대비 증가함.

【업종별 국경간 인수합병 추이】

산업별 부문	금액(십억 달러)			건수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전 체	1,023	707	250	7,018	6,425	4,239
1차산업	74	90	48	485	486	433
농업, 수렵, 임업, 어업	2	3	1	64	59	63
광업, 채석업 및 석유	72	87	47	421	427	370
제조업	337	326	76	1,993	1,976	1,153
식음료 및 담배	50	132	10	213	220	109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117	74	33	325	316	225
비금속성 광물 제품	38	29	0	130	91	22
금속 및 금속성 제품	70	14	-3	218	199	95
기계 및 장비류	20	15	2	228	265	134
전기·전자제품	24	14	18	266	309	203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3	12	9	86	95	74
서비스업	612	290	126	4,539	3,962	2,653
전기, 가스, 수도	103	49	62	135	159	130
건설	13	2	10	149	114	96
무역	41	17	4	588	590	324
운송, 보관 및 통신	66	34	16	436	343	211
금융	249	74	10	712	563	458
비즈니스 서비스	102	101	17	1,972	1,681	1,109

□ 제조업에 대한 M&A 투자 급감

-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악화로 인해 제조업의 M&A 규모는 전년대비 77% 급감함. 특히, 자동차 산업은 금융위기 파급 효과로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감소폭이 두드러짐.

□ 1차 산업과 서비스업 M&A 투자 비중의 상승

- 1차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 최종 수요의 감소, 기업 현금 흐름의 둔화 등으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임.
- 다만, 가장 큰 10개의 M&A 거래 중 4개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되었고, 다른 부문 투자 감소로 인해 에너지 사업 분야의 비중은 증가
- 2010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은 업계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광업 투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도 전년대비 57% 감소함.

- 비즈니스 서비스⁶⁾의 경우 전년대비 87% 감소하였으며, 금융 서비스도 83%가 감소했음. 반면 에너지, 수자원 공급 서비스는 전년대비 증가

5. 진입 방식별(인수합병과 그린필드) 동향

□ 국제금융시장의 붕괴로 다국적 기업간 M&A가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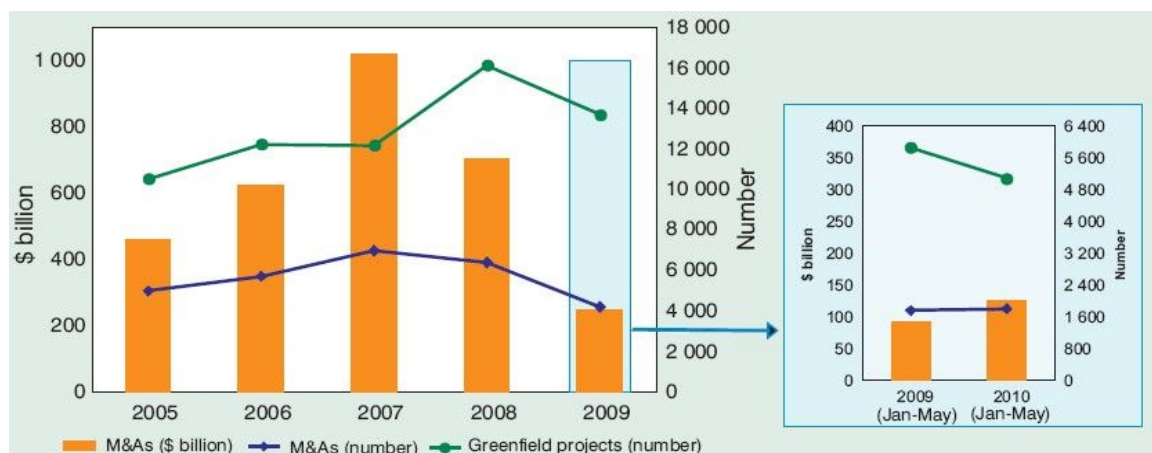
○ 금융 기관의 위험 회피와 주식시장의 붕괴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M&A를 통한 FDI보다 그린필드 방식의 FDI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호됨.

- 국경간 M&A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34% 감소하였으며(거래금액으로는 65% 감소), 그린필드 방식은 거래량 기준으로 15% 감소에 그침.

○ 하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가 M&A 방식의 투자 선호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시장과 경제 환경이 안정된다면 자금조달이 더욱 활발해져 M&A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음.

- 실제 2010년에는 그린필드보다 M&A 방식의 FDI가 증가

【인수합병과 그린필드 투자 추이】



6) 비즈니스 서비스 : 무역(또는 상품교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운영리스 서비스, 기타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

6. 특별 기금의 투자 동향

□ 특별기금에 의한 전세계 FDI는 2009년 10% 이상을 차지

- 2009년 특별기금에 의한 M&A 성사 규모는 1,29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사모특별기금(private equity fund: PEF)이 1,060억 달러,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가 229억 달러를 차지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 사모 펀드 및 집합투자기금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4%, 65%가 감소하여 다른 투자 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 감소폭에 비해 큼.
 -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거래가 75% 이상 감소하면서 거래금액은 줄어든 반면, 소규모 거래와 인수합병 거래건수는 증가함.
- 2009년에 사모펀드의 자금 조달액은 2,200억 달러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고, 이는 2003년 이후 최저금액에 해당하는바,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성향이 강화되었음.
 - 또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신규투자자와 기존투자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용 경색으로 인한 차입매수 인수합병 시장의 몰락, 기 매수기업의 투자 손실 등도 사모펀드의 투자 감소에 주요 원인임.
 - 2009년의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의 초기 5개월 동안에도 거래 금액 기준으로 2%, 거래 건수 기준으로 36%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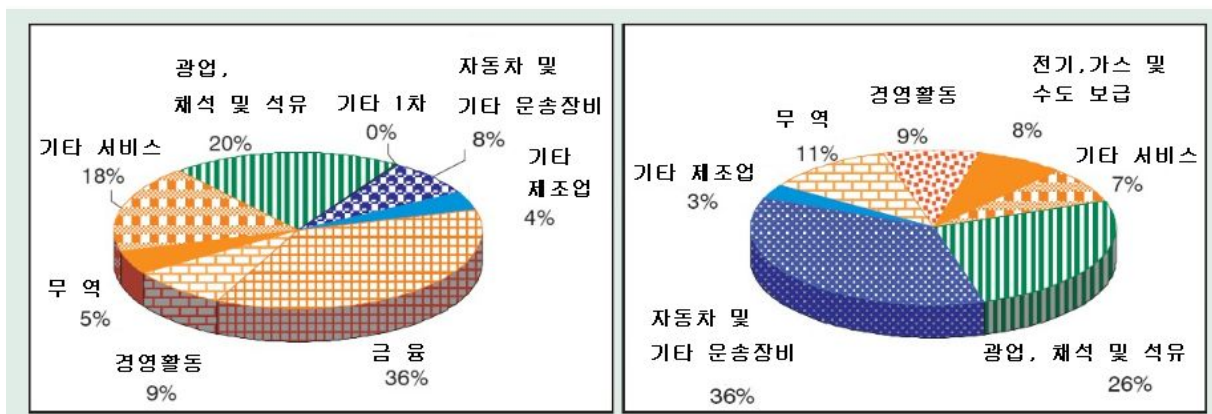
□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s)

- 최근 국가의 자산으로 구성된 기금에서 출연한 국부 펀드의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비중이 점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29억 달러를 집행하여 전년대비 15% 증가함.

- 국부펀드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와 경기 둔화로 매입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특히 자원 부국의 국부펀드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음.

- 국부펀드들의 투자 전략 수정도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금융 부문의 인수합병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상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원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국부펀드의 투자업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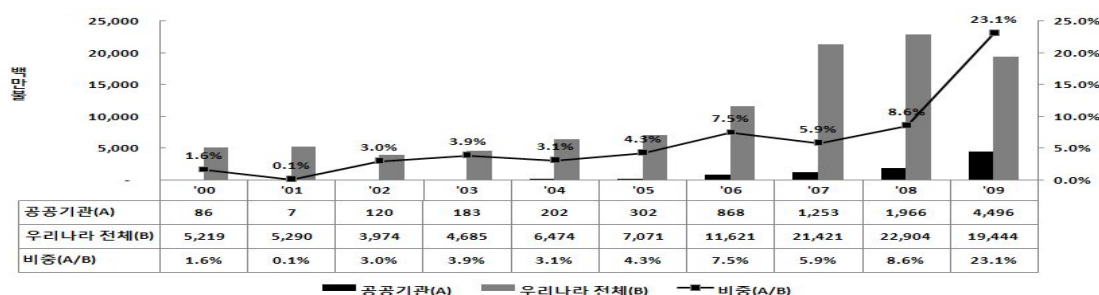


주 : 1. 좌측은 2007년~2008년, 우측은 2009년~2010년 4월
 2. 통계 측정 한계로 인해 국경간 인수합병만을 포함

<우리나라 공공기관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00년 이후 연평균 55.2%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증가율 15.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45.0억불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투자금액의 23.1%까지 투자 비중이 상승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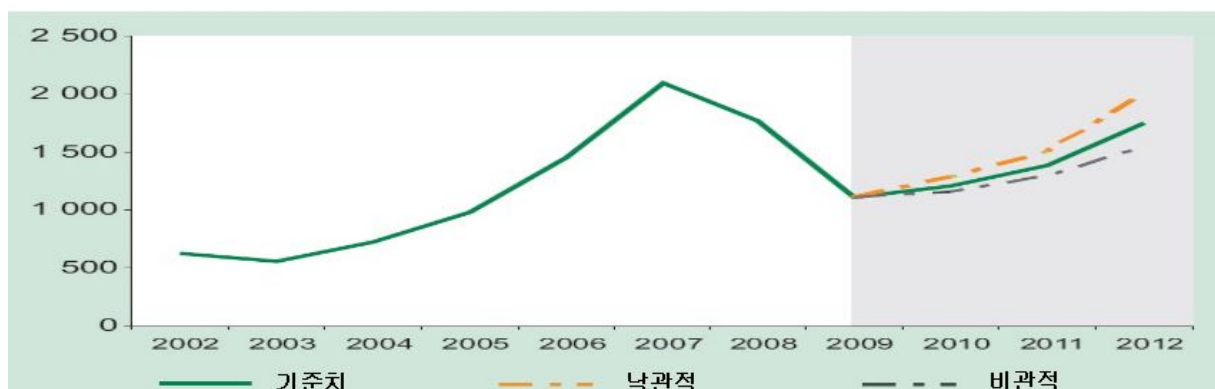
IV. 향후 전망

1. 연도별 투자 전망

□ 2010년~2012년 중 해외직접투자는 회복 전망 : 조심스런 낙관

- 금융시장의 안정, 경기 회복과 다국적기업의 수익성 개선, 각국의 해외투자에 우호적인 정책 실시, 저금리 기조의 유지 등으로 투자 심리 회복이 예상됨.
- 또한, 아시아가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이 주요한 FDI 유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인도와 러시아의 투자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FDI는 2010년에 1.1조 달러~1.3조 달러, 2011년에 1.3조 달러~1.5조 달러, 2012년에는 2008년의 수준인 1.6조 달러~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⁷⁾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



-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유럽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부도 위기설 제기, 각국의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 투자대상국에 존재하는 산업 보호주의 등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7) 이러한 예측은 경제 회복과 우호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2010~2012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전망>

- 금년도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인 투자 회복은 201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가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⁸⁾ 하고 있고, 개별 기업의 해외 판매 실적도 양호한 편으로 전반적인 투자 여건은 긍정적인 편으로 보임.
- 2010년 상반기 투자는 69.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하반기에 하비스트사 인수 등 대형거래가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⁹⁾하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 정부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고, 연기금이 해외자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공공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활기를 띠 전망.
- 한편, 수출입은행이 2010년 6월 실시한 '수출기업의 해외투자 계획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내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8%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유형별 전망

□ M&A형 해외직접투자 증가

- 다국적 기업의 재무 여력 개선, 주식시장의 회복세로 자금의 직접 조달 용이, 산업 구조 재편 등으로 M&A 형태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전망
- 통상 경제 회복기에는 그린필드보다 M&A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린필드 투자는 원자재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8) IMF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4.5%(‘10.4월)→5.7%(7월)→6.1%(9월)

9) 상반기 투자액 64.0억불, 하반기 130.3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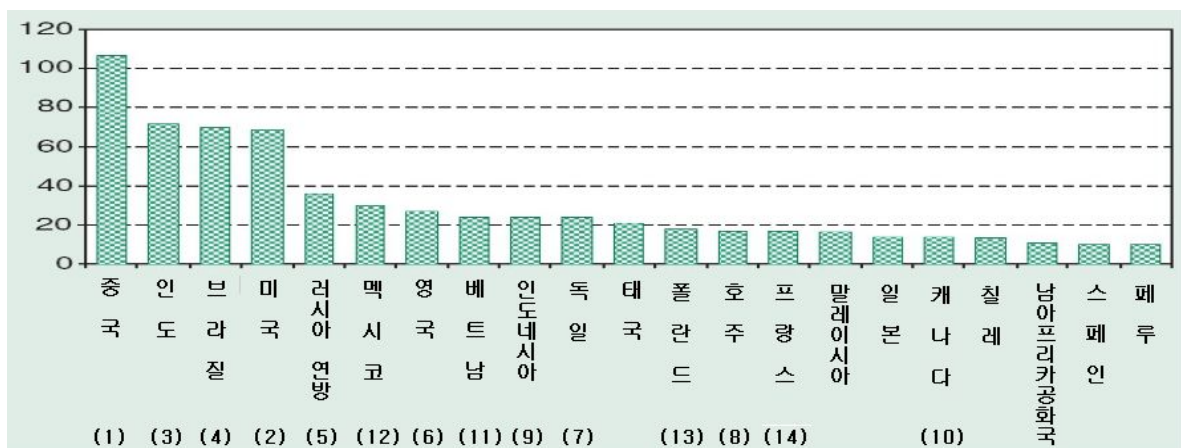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증가

- 기존의 서비스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주로 공략했었다면 향후로는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경영활동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은 여전히 낮은 수요에 직면해 있으나, 친환경에너지 시장과 개도국의 소비재 시장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특정 업종은 투자증가 전망

□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증가

- 유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보다 적극적이나 개발도상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각국 무역투자진흥공사(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IPAs) 대상 조사에 의하면 주요 해외투자국 10개 중 3개, 20개 중 7개가 체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향후 해외투자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
- 유입 측면에서도 BRICs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풍부한 천연자원, 빠르게 성장하는 내수시장, 산업 개방 등 투자 환경이 우수하고, 특히 금융위기 하에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보이며 투자 매력도가 증가
- 저렴한 노동비용을 이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에도 이루어질 것임.

【다국적기업의 투자대상 선호국】



주 : 괄호안은 전년 순위